

일본의 원전 PR영화: 원자력 발전의 신화화

정충실*

【요약】

영화는 현실감을 창출하는 방식을 은폐함으로써 수용자·대중으로 하여금 영화 속 재현된 질서를 실제적,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세기 초반부터 대중 동원을 목적으로 권력이 의도하는 바를 재현하고 있는 선전/교육영화를 활발히 제작/상영하여 왔다. 전후戰後의 원전 PR영화 역시 대중동원을 목적으로 국가와 관련산업이 의도하는 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작/상영되었다. 1960-70년대 원전 PR영화는 원전의 건설과 가동을 통해 일본이 패전국에서 진보된 과학기술국으로, 원자력의 파괴적 에너지로 인한 피폭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이용국으로 새롭게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미 경제 대국으로 입지를 굳힌 1980-90년대의 영화는 원전이 자연·지역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영화와 같은 효과적인 동원수단을 지니지 못하여, 국가나 관련 기업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과 개인의 주장, 연구는 대중에게 전달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은 원전에 대한 신화를 구축하기 위해 영화 등의 효과적인 동원수단을 독점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방적 입장의 내용만 전달하려 했기에 이는 원전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논의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주제어】 원전 PR영화, 국가 정체성, 자연과의 공존, 패전 극복, 대중 동원

* 동의대학교 일본어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02201390001).

<https://doi.org/10.34162/hefins.2022..29.012>

I. 서론

철학자 다카하시 테즈야高橋哲哉는 일본은 오키나와와 후쿠시마를 희생시키면서 작동, 유지되는 국가라 설명한다. 즉 패전의 대가인 미군 주둔은 오키나와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에 집중시키면서 이에 영향받지 않은 이들은 오키나와와 후쿠시마의 희생을 통해 이익을 얻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회체제를 작동, 유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그는 일본은 오키나와와 후쿠시마를 희생양 삼은 “희생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사회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희생의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 희생을 은폐하거나 공동체에 있어 숭고한 것으로 미화하는 장치들이 동원된다고 설명하였다.¹⁾

본고에서는 후쿠시마와 관련된 희생의 시스템에 주목하겠다. 그 가운데서도 희생의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원전의 위험성, 부작용을 은폐하거나, 원전을 가동하는 것 혹은 위치시키는 것을 숭고함으로 미화시키는 장치로서 일본의 원전 PR영화에 집중한다. 일본에서 PR영화란 공적·사적 단체, 상품의 홍보와 일방적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지칭한다. 또한 PR영화를 통해 제작 주체는 자신들의 이익에 근거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관객에게 밀게 하려 한다. PR영화 역시 일종의 선전영화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원전이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도호쿠지역은 보신戊辰전쟁 이후 메이지유신 과정에서 근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겼으며 최근까지도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²⁾ 원전은 그 위험성에도 정부와 정계, 전력산업, 학계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지속되었는데, 후쿠시마를 비롯한 소외지역은 정부지원금이라도 얻기 위해 원전이라는 위험시설을 유치하고 유지한 것이었다.³⁾ 실상은

1) 다카하시 테즈야, 한승동 역 (2013), pp. 37-38.

2) 민덕기 (2019), pp. 325-334.

개발소의 지역이라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원전을 유치하였지만 PR영화와 같은 원전을 미화하는 장치들을 통해 주민들의 일부는 원전은 안전하며 원전 유치 행위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대중동원을 목적으로 원전에 대한 미화, 선전 장치에 대한 연구로는 후나바시 하루토시(船橋晴俊)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전력회사,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이 거대한 자본으로 원전에 대한 정보조작을 행해왔다고 지적한다. 조작 방식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로는 원자력 전력회사의 광고와 선전 및 원자력 관련 정부조직에 대한 홍보, 두 번째는 미디어 보도와 TV프로그램에 대한 관여, 세 번째는 오피니언리더에 대한 관여, 네 번째는 연구자에 대한 관여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회의적 사회인식과 여론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왔다고 설명한다.⁴⁾ 이 연구는 원전 미화, 선전 장치의 전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의미를 지니나 본고가 주목하려 하는 원전 PR영화의 구체상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요시미 야吉見俊哉는 1950년대 이후 원자력 선전 박람회, 신문사의 보도, 원자력 선전영화, 미공보원의 활동 등을 통해 피폭국 일본에서 원전이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평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양상을 분석한다.⁵⁾ 그러나 다양한 선전 수단의 일부로 영화를 다루고 있다보니 원전 PR영화에 대해서는 간단한 소개에 그칠 뿐이다.

반면 드물게 당시의 원전 PR영화에만 주목해 이를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 세오 하나코(瀬尾華子)는 1950, 60년대 일본의 원자력 기관과 회사가 기획·제작한 다수의 원자력 PR영화를 분석하여 이들 영화가 원자력의 평화이용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일본의 근대화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너무 많은 영화를 분석한 탓인지 원자력 PR영화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 원자력 PR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의 의미가 명확히

3) 김은혜·박배균 (2016), pp. 119-123.

4) 船橋晴俊 (2013), pp. 136-161.

5) 吉見俊哉 (2014), pp. 253-280.

잘 드러나지 않으며 원전 PR영화 내용의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⁶⁾

이에 본고에서는 패전 후 고도성장기의 원전 PR영화들에서는 원전이 패전국에서 진보된 과학기술국으로서, 전범국에서 평화국가로서 지위를 전환하게 하는 등 원전을 일본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 확립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선진국으로 진입해 패전의 기억이 잊혀져가던 고도성장기 이후의 PR영화는 이전의 것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아울러 살펴본다. 분석 대상의 원전 PR영화는 다음과 같다.

제목	제작사	제작 년도
원자력 발전의 새벽 原子力発電の夜明け	도쿄시네마 東京シネマ	1966
여명-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건설기록 黎明-福島原子力発電所建設記録	니치에이 과학영화제작소 日映科学映画製作所	1967
여명-2부:건설편 黎明-二部:建設編	니치에이 과학영화제작소 日映科学映画製作所	1971
후쿠시마의 원자력 福島の原子力	니치에이 과학영화제작소 日映科学映画製作所	1977
새가 본 섬나라의 에너지: 해안선에 위치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鳥の見た島国のエネルギー: 海岸線に立つ日本の原子力発電所	이와나미서점 岩波書店	1987
눈으로 보는 후쿠시마 제일발전소 目で見る福島第一発電所	니치에이 과학영화제작소 日映科学映画製作所	1991

[표-1] 분석 대상 영화

이상의 영화는 도쿄전력 등의 전력 회사와 정부기관인 에너지지원청이

6) 瀬尾華子 (2016), pp. 47-62.

직접 지원하여 제작한 것이다.

본격적인 원전 PR영화 분석에 앞서 전전戰前과 미점령기간에 행해진 교육영화/선전영화 상영 양상도 간략히 살펴보겠다. 전전과 미점령기간의 교육영화/선전영화는 국가의 국세조사, 자력갱생운동, 점령정책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선전하여 대중동원을 목적으로하는 영화이기에 원전 PR영화와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원전 PR영화 상영은 그 이전부터 행해진 교육영화/선전영화 상영의 맥락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이전의 교육영화/선전영화 상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원전 PR영화 상영의 목적이나 상영 양상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일본 선전영화 상영의 역사

전전 일본에서 교육영화 상영은 오사카 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활동 사진반 발족으로부터 시작된다. 활동사진반은 국세조사 등 국가 시책을 선전하고 이에 대중을 동원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전국에서 이를 상영하였다.⁷⁾ 1928년에는 교육영화의 더욱 원활한 상영을 위해 교육영화 라이브러리가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사와 문부성에 의해 설치되었다.⁸⁾ 1930년대 이후에는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자력갱생, 근검절약 등 국가가 의도하는 바를 내면화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영화가 제작되었고 상당수의 학교와 관청은 교육영화 상영을 위한 영사기를 소유하게 된다.⁹⁾ 일찍이 일본 당국은 대중 동원에 있어 영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많은 투자와 제도정비를 통해 교육영화가 전국에서 원활하게 상영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당시 국가권력이 교육영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많은 이들이 교육영

7) 水野新幸 (1925), pp. 1-125.

8) 文部省 (1931), p. 11.

9) 文部省 (1933), p. 18.

화를 관람하게 한 이유는 영화가 어떠한 교육수단이나 대중문화보다 효과적인 혼육과 동원의 수단이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에 있다. 이는 영화가 영화 속의 가상공간, 즉 국가가 내면화시키고자 하는 바를 재현하고 있는 세계와 질서를 관객이 실제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드리J.L.Baudry는 영화는 그것의 현실감impression of reality을 만들어 내는 방법, 즉 스크린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은폐함으로써 관객은 영화 속 가상세계를 실제인 것처럼 감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현실감 창출 방식을 은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등장인물의 시선/카메라의 시선/관객의 시선의 일치, 연속적 편집 방식 등 영화 텍스트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객의 머리 뒤에 위치한 영사기, 영화관의 어둠과 관객의 고립 등 관람 환경도 이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¹⁰⁾ 이에 당시 일본의 교육자들은 교육영화 상영을 통한 동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영화가 설명의 나열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연속적 편집 등을 통해 영화 속 가상공간이 실제인 듯 느껴지게 하는 기본적 영화 구조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¹¹⁾ 영화 속 세계를 실제인 듯 감각하게 하는 관람 환경도 잘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²⁾

제국주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패전 이후의 미점령군과 일본 정부 역시 영화의 효과적 동원 효과를 잘 알았기에 대중의 교육과 선전에 영화를 적극 이용하였다. 다만 전전의 제국주의 정부와 달리 미군점령군과 전후의 일본정부는 일본 국가주의가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미국의 우월성과 미국이 파괴적 핵 사용국이 아닌 평화국임을 말하는 영화를 주로 상영하였다. 이때 상영된 교육영화의 주된 내용은 미국의 선진된 사회 문화, 미점령 이후 일본에서 민주화의 성과, 평화적 원전 에너지 등이었다. 영화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과 동원을 위해 미점령군과 일본정부는 전국에 1300대의 영사기를 추가 보급하

10) Baudry, (1975) p. 2.

11) 西川幸次朗 (1937), pp. 102, 144-145.

12) 關野嘉雄·下野宗逸 (1938), pp. 7, 144, 145, 152, 163.

였으며 이에 1948년에서 1950년 기간 동안 니가타新潟에서만 월 평균 500여회나 선전영화를 상영할 수 있었다. 미군 점령 종료 후에도 일본 정부는 영화를 이용한 대중 동원을 지속해 나갔다.¹³⁾

영화가 탄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세기 초반부터 전후의 시기까지 일본에서는 영화가 대중을 동원하고 교육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선전영화 제작, 상영에 대한 설비를 확충하고 교육/선전영화 제작과 상영 경험을 축적해 온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피폭국민 일본에서 원전의 건설·확장 과정에서의 원전 PR영화의 상영/제작은, 교육/선전영화 상영의 경험과 제도를 오래동안 축적, 확충하고 영화의 효과적 동원 효과를 명확히 인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점령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육과 선전 목적의 시청각 라이브러리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어 1969년에는 전국에 928개소가 운영되는데 이르렀다. 이바라키茨城현에서만 46개소의 라이브러리가 운영되었다. 그곳에는 미점령시기와 마찬가지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등을 말하는 원전 PR영화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어 각 학교 등은 손쉽게 이를 대출해 상영할 수 있었다. 이외에 각지에서 개최된 원자력 평화이용 박람회에서도 원전 PR영화가 상영되었고 TV에서도 원전 PR영화가 방영되기도 했다.¹⁴⁾

원전 PR영화는 TV 방송의 시작, 경제성장과 전자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영상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전전, 점령기보다 자주, 적극적으로 상영될 수 있었을 것이며 대중은 이전시기 보다 손쉽게 이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13) 미 점령기 선전영화 상영에 대해서는 原田健一 (2012), pp. 265-272, 283; 土屋由香 (2012), pp. 47, 48, 64을 참고

14) 「学校でPR映画」, 『朝日新聞』 2012.02.07.

Ⅲ. 원전 PR영화의 내용

1. 원전이라는 진보된 과학기술 보유국, 일본

1966년 제작된 <원자력 발전의 새벽>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공간에서 하얀 실험복을 입은 남자가 유리 너머의 로봇팔을 조작하며 무언가 실험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때 나레이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향해 진보해온 인류는 지금 드디어 원자력 시대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을 진보로 설정하는 나레이터의 설명은 로봇팔을 조종해서 행하는 실험 장면으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곧 이어 화면에 “원자력 발전의 새벽”이라는 타이틀이 나타나고 일본에서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노출된다. 돌연 생명을 빼앗는 야생의 불이라며 거칠게 타오르는 산불 장면이 등장한다. 다음에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된 아궁이의 불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통해 화력 발전소에서 타고 있는 불을 보여준다. 이후 원자로 장면을 보여주면서 나레이터는 “과학의 진보로 원자력 분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의 에너지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즉 이 부분에서 영화는 “에너지가 되지 못한 산불 → 나무를 태워 발생하는 에너지 →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에너지 →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의 진보 도식을 만들어 원자력 발전이 새로운 단계의 진보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¹⁵⁾

15) 당시 일본의 가장 진보된 기술을 집적해 만든 1970년 오사카 엑스포장으로 전기 공급은 의도적으로 미하마美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했다.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는 오사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또한 간사이 전력은 엑스포 회장으로의 전기 공급을 위해 예정보다 서둘러 미하마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했다. (『初の原発 大阪万博照らす 電気が生まれた(4)』, 『日本経済新聞』, 2015.08.28.) 이를 통해서도 원전 PR영화에서만 아니라 당시 일본 사회에서 원자력은 오사카 엑스포에서 과시될만한 최선의 기술, 진보된 기술로 받아들여

물론 진보라고 말하는 원자력 기술의 획득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작동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이에 1960-70년대의 PR영화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전반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직전의 모습을 주로 다루는 데 1971년에 제작된 <여명-2부:건설편>의 첫 부분에서는 물보라가 거세게 치는 장면을 20초간이나 보여준다. 이후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바다에 면한 누런색의 황토로 이루어진 낭떠러지 해안을 15초간 보여준다. 1967년 제작된 <여명-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건설기록>에서 건설 예정지 주변에서 각종 조사를 벌이는 곳은 황무지이다. 부감으로 촬영된 장면에서는 황무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고 연구원을 실은 자동차는 바짝 마른 갈대밭이 가득한 곳을 지난다. 이후 공사가 시작되자 불도저는 황토를 실어 나르고 산에 화약을 터뜨리자 황토가 대량으로 드러난다. 이는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착수 때 갖추어진 조건은 아무것도 없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 원전이 건설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1977년 제작된 <후쿠시마의 원자력>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두꺼운 철판을 제작하는 요코하마 공장을 비추어준다. 이때 공장의 거대하고 복잡한 설비들이 노출되며 분주히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비추어진다. 헬기를 이용해 발전소의 거대한 송전탑에 전선을 설치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철저한 복장을 하고 우라늄 검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난다. 1971년 제작된 <여명-2부:건설편>에서는 발전소 예정지 앞의 거친 파도를 뚫고 방파제와 거대한 테트라포트를 부설하는 장면, 변압기/발전기/터빈 부설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원자력 발전의 여명>에서는 발전소 건물의 최상부의 난간에서 크레인이 거대한 물체를 발전소 내부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사람의 크기에 대비되는 건설 중인 발전소의 거대함이

드러난다. 이상의 장면은 발전소 건설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며 발전소가 매우 거대한 규모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레이터가 후쿠시마 원전 1, 2호기와 달리 3호기는 대부분 국산 기술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이라는 기술의 진보를 오로지 일본의 힘으로 이룩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여명>에서는 선박으로 증기 장치를 발전소 건설현장 앞의 부두로 싣고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원전에 이용될 장치를 싣고 빠르게 달리는 기차, 여러 원전 장치를 운반하는 트럭의 모습도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어렵고 복잡하고 거대한 발전소 건설이 원전 건설지 주민이나 원전 관계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일본 전체의 노력과 협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발전소 건물 건설, 파도와 해일을 막아주는 방파제의 건설,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져 보내진 발전소 장치의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발전소가 완공되고 원자력 발전이 성공적으로 개시된다. 이에 <원자력 발전의 새벽>에서는 통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방송국은 통제실에 설치된 카메라로 원자력 발전의 성공을 전국에 알리는 것을 보여준다. 역시 신문도 발전 개시 성공 사실에 관한 기사를 쏟아낸다.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외관을 비추는데, 이때는 황무지와 같은 황량함이 사라지고 직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측면을 촬영한 장면에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건물 옆으로 색색의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실도 비추는데 마치 SF영화 우주선의 조종실처럼 이곳은 각종 단말기들과 조작 장치들로 채워져 있다. <후쿠시마의 원자력> 마지막 부분에서 완공된 발전소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흰색의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이고 송전탑은 흰색과 빨간색 줄무늬로 세련되게 채색되어 있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발전소의 깔끔하고 반듯한 건물과, 발전소가 드러서기 전 황토색으로 가득한 황량한 황무지는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 이후 <원자력 발전의 새벽>의 마지막에서 나레이터가 원자력

발전 가동을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자의 불”이라고 말하고 <후쿠시마의 원자력> 마지막에서 원자력을 새로운 에너지라 표현하며 “우리모두의 생활을 지탱하는 큰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나레이터의 발언과 앞서 언급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전의 풍경과 건설 후의 풍경을 극명히 대비시키는 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개시를 차원이 다른 진보, 엄청난 진척으로 감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후쿠시마의 원자력>과 <원자력 발전의 새벽>에서는 원자력 발전 성공 이후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 PR영화의 제목에서 “새벽”, “여명”의 용어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은 일본의 과학기술이 진보를 이루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의 새벽>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개시 성공 장면 직후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밤의 도시 풍경과 불빛으로 환하게 밝은 빌딩,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동하는 자동차 장면을 이어 붙여 마치 원자력 발전이라는 기술 발전이 일본인에게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하려 든다.

기존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기술을 역경을 헤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일본인이 손에 넣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본이 진보된 과학기술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건설 전의 예정부지 모습처럼 패전 이후 폐허의 황무지 같았던 일본에서는 미군상대 성매매 여성을 의미하는 팡팡이 미군의 팔장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였으며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 전까지 도쿄 주요 공간은 미군이 점유하고 있었다.¹⁶⁾ 이후 전자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조 산업 발전으로 비로소 일본은 패전국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겁탈당하고 있다는 불안을 잊어가면서 “메이드인 재팬”이라는 과학기술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얻어갈 수 있었다.¹⁷⁾ 또한 1970년 오사카 엑스포는 일본이

16) 김은혜 (2016), pp. 239-242;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역 (2010), pp. 123-124.

17) 新井智一(2005), p. 258.

패전의 상흔을 극복하고 선진된 과학기술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전세계에 공인받으려 한 이벤트였다.¹⁸⁾ 원전 PR영화 역시 황무지에서 차원이 다른 진보된 기술로 작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일본이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전시하여, 일본은 패전국에서 벗어나 진보된 과학기술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얻었음을 말하려 한 것이다.

2. 원자력 평화 이용국, 일본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과정의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원자폭탄과 동일하다. 원자폭탄이 이 에너지를 파괴와 살상에 이용하는 것과 달리 원자력 발전은 밀폐된 공간에서 핵분열을 통제하며 그 에너지를 이용해 냉각수를 데워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차이를 보인다.¹⁹⁾ 핵분열 에너지를 파괴와 살상이 아니라 전기 생산에만 복무시키기 위해서는 핵분열 과정을 밀폐시키며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막고 이를 엄격히 통제하는 장치와 기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지지만 말이다.

이에 <후쿠시마의 원자력>에서는 전반부에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핵분열과 방사능 물질을 밀폐시킬 수 있는 압력 용기와 격납 용기의 안전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철로 만들어진 두꺼운 압력 용기에 어떠한 균열이 없도록 초음파 검사를 하는 장면도 삽입한다. <원자력 발전의 새벽>에서는 공장으로 철판을 운반해 그 철판을 성형하고 용접 등으로 조립해 두껍고 거대한 압력 용기를 만들어 내는 장면을 상세히 비춘다.

압력 용기에 대한 설명, 그 제작과정을 보여준 이후 <후쿠시마의 원자력>

18) 정충실 (2021), pp. 662-664.

19) 다카기 진자부로, 김원식 역 (2001), pp. 34.

에서는 압력용기의 겉을 다시 둘러싸는 격납용기에 대해 설명한다. 격납용기의 두께는 어린아이 두명이 양팔을 벌린 정도의 것임을 보여준다. <여명-2부: 건설편>에서는 압력용기를 감싸는 두껍고 거대한 격납용기의 타설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보여준다. 그 거대함과 웅장함을 보이기 위해 카메라를 바닥에 놓고 하늘 방향으로 격납용기를 촬영한 장면도 삽입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지금의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무색하지만, 격납용기를 검사하는 장면을 보여 줄 때 나레이터는 관동 대지진 3배의 지진도 견딜수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핵분열 과정을 밀폐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압력용기와 격납용기의 복잡하고도 어려운 제작, 설치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 이후에는 방사능 유출을 막는 2중출입장치, 공기필터, 방사능 폐기물의 철저한 처리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원자력의 새벽>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작동 개시 이후 나레이터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거대한 원자 에너지를 원자로 안에서 다루고 있다. 원자의 불,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자의 불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본의 기술로 핵분열 에너지를 가두게 됨으로서 일본은 원자력 평화 이용국이 되었고 이는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기술로 핵분열 에너지를 가두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일본이 피폭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들을 파멸시킨 핵분열 에너지를 인류의 풍요를 위해서만 이용하는 원자력 평화 이용국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⁰⁾

<후쿠시마의 원자력>에서는 철저한 방사능 물질 통제를 보여주는 장면 이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푸른 잎, 수영장에서

20) 1991-1993년 간 재임했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총리는 일본은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공언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중의원 의원은 당시 탈원전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카하시 데즈야, 한승동 역 (2013), pp. 70-72.)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피폭국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국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폭국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 위해 원전가동을 지지한 것이다.

알록달록한 수용복을 입고 물놀이하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일본에서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 안전함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해 주는 것이다.

파괴적인 핵분열 에너지를 앞선 기술을 통해 가두어 두는 것으로 일본은 피폭국에서 원전의 평화적 기술 이용국이 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원전을 개시하는 데 있어 미국의 도움이 있었음을 PR영화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기도 하다.

<원자력 발전의 새벽>에서는 발전소 통제실의 한 귀퉁이에 백인이 전화를 받고 있고 이를 일본인 남성이 기록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둘러 앉아 회의할 때도 이 회의에 참석해 일본인의 의견을 듣거나 기록하는 백인 남성을 보여준다. <후쿠시마의 원자력>에서는 우라늄 원료를 원자로에 주입하는 작업을 할 때 많은 이들이 통제실에서 이를 지켜보는데 그 중 한명은 백인이다. <여명-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건설기록>에서도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사람들 사이에 백인이 섞여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때 나레이터는 후쿠시마 발전소 건설에 미국 GE사 직원으로부터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장면들과 설명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술 전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회의에서 조언 정도를 듣는 데 그쳤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며 백인의 등장 장면도 적어, 원자력 발전 개시와 이로 인한 일본의 진보된 과학기술국, 원전 평화이용국으로서의 정립은 일본의 기술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장애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가동에는 미국의 협력이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다. PR영화는 이를 통해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투하한 적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평화로운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돕는 친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²¹⁾

21) 미국은 1950년대 파괴적 핵무기 이용 국가라는 인식을 벗기 위해, 우호국과 원자력의 은혜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타국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원전 PR영화를 제작하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상영하기도 하였다. 원자력 발전

1945년 파괴적인 원자력으로 인해 일본은 패전국, 피폭국이 되었고 일본에 있어 미국은 적국, 원수, 점령군이 되었지만,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냉전기에 진보된 원전 기술로 인해 일본은 평화국이 되고 일본은 미국에 있어 우방국이 되었음을 PR영화는 말하고자 한 것이다. 나를 파괴한 무기의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무기를 사용한 적이자 세계 최강국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찌보면 패전의 완벽한 극복이라고도 할만하다. 패전의 완벽한 극복이 원전을 통해 가능하다고 원전 PR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자연·지역과 공존하는 원전

1970년대 일본은 GDP 세계 2위에 올라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도쿄 올림픽과 오사카 엑스포라는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공인받게 되어 일본인의 기억에서 피폭과 전쟁 경험은 사라져 갔다. 이에 대해 노이 sawaragi Noi Sawaragi는 고도성장기 애니메이션과 팝아트에 등장하는 전시기의 무기는 역사적 맥락이 삭제된 채 그저 화려한 작품의 일부로서 내삽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이 시기 일본인들이 전쟁 기억을 망각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²²⁾

풍요를 구가한 1980년대, 90년대 원전 PR영화에서 국가정체성 확립 혹은 피폭국, 패전국이라는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원전이라는 진보된 과학 기술 보유국, 원자력의 평화 이용국임을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80, 90년대의 것에서는 원전이 자연·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²³⁾

에 있어 미국의 협조를 언급하는 일본의 원자력 PR영화는 미국의 원전 PR영화의 뜻을 이어 받고 있다 할 것이다. (土屋由香 (2012), pp. 47, 48, 64. 참조)

22) Noi Sawaragi (2005), pp. 187-205.

23) 요시미 슌야 (2014), p. 278에서는 원전 PR영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가에서 지역으로 담론이 축소되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조

우선 원전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과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전과 주변 자연환경을 부감으로 촬영해 상호간의 공존을 한눈에 느끼게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눈으로 보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1991)의 전반부에서는 헬기에서 촬영하여 백색 사각형의 원전 건물을 기준으로 화면의 윗부분에는 드넓게 펼쳐진 녹색의 들판과 산을, 아랫부분에는 푸르른 바다를 노출시키고 있다. 백색 사각형의 원전 건물은 녹색의 들판과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 후쿠시마 해안지역 풍경의 일부로 여겨지며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는 헬기가 이동하며 해안가에 차례로 세워져 있는 원전 건물을 비추는데 앞의 장면과는 달리 원전 주변 지역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앞에 설치된 방파제를 치는 파도의 하얀 물보라와 원전 앞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 원전 주변의 잘 정리된 푸른 나무들의 모습에서 정갈함과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부감으로 촬영된 후쿠시마 발전소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는 흰색의 원전 건물들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푸르른 바다를 오른쪽으로는 녹색의 들판을 보여준다. 전반부와 각도를 달리하여 화면의 아래에서 위로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해안선의 모습도 잘 드러내고 있다. 전반부의 것에서 변주가 있지만 역시 원전이 후쿠시마의 해안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가 본 섬나라의 에너지: 해안선에 위치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1987)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영화 대부분의 장면이 일본 곳곳의 해안선에 위치한 원전 주변 풍경을 부감으로 촬영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이다. <눈으로 보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그 장면들의 상당수는 원자력 발전소 건물을 기준으로 좌우 혹은 상하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푸른 바다와 녹색의 들판·산을 드러내 보여준다. 하계에 촬영해 바다의 푸르름과 들판·산의 녹색이 잘 대비되어 파란색과 녹색이 명확히 드러나게 했다. 가장 먼저

사한 바 국가정책성확립에서 자연환경·지역으로의 변화를 담론의 축소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는 원전 PR영화 내용 변화의 의미도 언급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소개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경계로 오른쪽에는 녹색 들판과 산, 왼쪽에는 파란 바다가 위치해 있다. 이때 헬기 소리가 들려와 이후의 부감 장면들도 헬기에서 촬영된 것임을 알게 한다.

영화에서는 다음으로 시코쿠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를 찾아간다. 푸른 바다위에 길게 늘어져 있는 녹음으로 우거진 반도의 지형을 비추다 그 속에 위치한 이카타伊方 원전을 줌인으로 노출시킨다. 이후 장면에서는 이동하는 헬기 위에서 주변지역을 촬영하며 바다와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데 이동 중 돌연 발전소 건물을 노출시켜 비추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발전소 건물을 경계로 푸른 바다와 녹색의 들판이 위치한 장면들을 연속시킨다. 이후 사가현佐賀県の 겐카이限界원전으로 이동한다. 부감으로 촬영된 푸른 바다와 드넓은 녹지가 나타나고 녹지를 훑어가자 도시의 모습이 보인다. 연속해서 다음 장면들에서는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은 항구와 마을이 등장한다. 드넓은 녹색의 논밭을 훑어가자 저 멀리 발전소가 나타난다. 이후 겐카이 발전소를 경계로 상단에서는 푸른 바다가 하단에는 초록의 논밭이 펼쳐져 있다. 이동하다 돌연 나타나는 원전의 모습, 바다와 논밭의 경계를 이루는 원전의 모습은 사가현의 자연풍경을 해치지 않으며 원전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한다. 후쿠이현福井県 미하마美浜 원전을 소개할 때는 오른쪽에는 무지개가 떠있는, 녹음과 어우러진 발전소 건물을 정면에서 보여준 후 역시 부감으로 촬영된 푸른 바다와 녹색 들판 사이 경계에 위치한 발전소 주변 풍경을 비춘다. 구불구불한 해안이 펼쳐져 있는 발전소 주변과 긴 모래 해변을 부감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역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발전소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영화는 마지막에, 예정되어 있을뿐 아직 원전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아오모리현青森県 오오마大間 지역을 소개한다. 부감으로 촬영된 이 지역의 들판은 녹음으로 우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런색의 땅이 듬성 듬성 드러나

을씨년스럽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처럼 녹색과 파란색이 대비를 이룬 정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지 않은 것이다. 이는 원전이 있는 지역과 아직 없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대비시킴으로서 원전이 있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시켜 원전이 자연환경과 공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1980, 90년대에 제작된 영화들은 이전의 영화들과 달리 원전 혹은 원전 내부의 장치들을 상세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특히 <새가 본 섬나라의 에너지>에서는 높은 상공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촬영된 원전의 걸모습만을 보여준다. 이는 1960, 70년대 PR영화에서처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근접하여 촬영된 콘크리트로 타설된 거대한 원전 건물과 원전 내부의 복잡한 쇠덩이 장치가 자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어서, 자연환경과의 공존을 드러내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1980, 90년대 PR영화는 원전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 지역민의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눈으로 보는 후쿠시마 제일발전소>에서는 마치 공원처럼 잘 정돈되어 있는 발전소 경내를 비춘 이후 도로가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에 나레이터는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민의 협력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설명을 한다. 이는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발전소로 출근하는 사람이며 후쿠시마 발전소는 지역민을 고용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새가 본 섬나라의 에너지>에서 시코쿠의 이카타 발전소를 소개하는 부분의 후반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지역 특산물인 감귤 밭을 부감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다시 실내 공장에서 귤을 분류하는 지역민의 모습을 비춘다. 발전소가 지역의 감귤 농사를 방해하지 않으며 상호공존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후쿠이현의 미하마 발전소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멀리 원자력 발전소를 배경으로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비춘다.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클로즈업해 보여준 후 발전소를 배경으로 해수욕장 파라솔

아래의 피서객도 보여준다. 나레이터는 과거 반농반어업 지역에 머물렀지만 현재에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해 지역의 관광업에 원자력 발전소가 해가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영화는 배 위에서 발전소의 정면을 촬영하다 카메라를 옆으로 돌려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민을 비춘다. 이후 작업하는 어민과 그물에 담긴 생선의 모습을 클로즈업해 보여준다. 역시 발전소가 주민의 어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가현 겐카이에서는 원전 주변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 풍경을 부감으로 보여준 후 축제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해 비추고 있다. 이는 앞선 장면들처럼 지역민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원전이 지역민의 일상·문화활동과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1980년대 이전의 원전 PR영화들이 지역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후의 영화들만큼 지역을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이후의 영화들은 지역의 자연환경 혹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경제활동과 원전의 공존을 주로 다루는 것에 비해 이전의 것은 지역의 개발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여명-2부:건설편>에서는 원전 주변 새로 건설된 육교, 도로, 아파트를 비추며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건설됨에 따라 주변 마을의 모습도 변했다는 나레이터의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원전 PR영화의 이러한 내용의 변화는 경제대국으로 입지를 굳힌 일본이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정체성 확립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일본 사회 전체에서 자연환경 보호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다수의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고 1980년대 본격적으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일본에서는 1993년 환경기본법이 제정되고 학교에서는 자연환경 보호 교육을 본격화하였다.²⁴⁾ 또한 1970년 과소지역대책긴급 조치법 제정 이후 1980년,

24) 남경희 (2010), pp. 26-27.

1990년 계속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역 지원 강화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음을 잘 보여준다.²⁵⁾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이로 인한 엄청난 환경오염의 발생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된 것도 원전 PR영화에서 원전과 자연의 공존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이유일 수 있다.

IV. 결론

영화는 현실감을 창출하는 방식을 은폐함으로서 수용자·대중으로 하여금 영화 속 재현된 질서를 실제적,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할 수 있기에 일본정부는 20세기 초반부터 대중 동원을 목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재현하고 있는 선전/교육영화를 활발히 제작/상영하여 왔다. 전후의 원전 PR영화 역시 대중 동원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그 영화는 정부기관과 관련기업이 의도하는 바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1960-70년대 원전 PR영화는 원전의 건설과 가동을 통해 일본이 패전국에서 진보된 과학기술국으로, 원자력의 파괴적 에너지로 인한 피폭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이용국으로 새롭게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미 경제 대국으로 입지를 굳힌 1980-90년대의 PR영화는 원전이 자연·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1960-70년대 영화는 원전을 가까이에서 혹은 그 내부를 촬영한 것에 반해 이후의 영화는 높은 상공에서 원전과 거리를 두고 그 겉모습만 촬영했다는 차이도 보인다.

패전과 피폭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기억으로 인한 고통에 처해있을 때는 원전이 패전/피폭의 경험을 극복하게 하고 일본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패전/피폭의 기억은 잊혀져 갔으나 고도성장의 결과 맞닥뜨린 환경오염과 지역 소외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때에

25) 조진우 (2020), pp. 149-156.

는 원전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각각의 시기 대중에게 있어 원전의 거부감을 줄이고 오히려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작 과정에서 상당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여 동원 수단으로서의 영화는 국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이용하기 쉽고 영화는 동원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다. 또한 각 시기 대중에게 적절히 소구할만한 내용까지 갖추었으며 학교, 박람회장, 안방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상영된 원전 PR영화는 대중을 상대로 국가와 기업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여 원전의 신화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나 관련기업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과 개인은 영화와 같은 효과적인 동원/교육 수단을 지니기 쉽지 않으며 또한 학교나 박람회장 등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여 폭넓은 대중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어렵다. 이에 서론에서 언급했듯 원전을 둘러싸고 후쿠시마로 대표되는 소외 지역의 희생 문제가 크게 주목되지 못했다. 핵폐기물 처리, 핵분열 과정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전력 생산과정에서 데워진 물의 배출은 원자력 발전 주변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며 원전은 출력 조절이 어려워 일국의 주된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을 만큼 혁신적 기술도 아니라는 주장도²⁶⁾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즉,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은 원전에 대한 신화를 구축하기 위해 영화 등의 효과적인 동원/교육수단을 독점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 입장의 내용만 전달하려 했기에 이는 원전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논의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자연재해인 대지진에 더해 원전사고에 대한 불완전한 대비와 미숙한 대처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미증유의 재난안에 있어, 원전을 신화화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연구들이 투명하게 논의될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PR영화 등 원전관련 미디어와 그 제작자의 책임이 작다 할 수는

26) 이에 대한 주장은 다카기 진자부로, 김원식 역 (2000), pp. 32-34, 76-78에서 확인 가능.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해 (2016), 「1964년 도쿄올림픽과 도쿄개조」, 『사회와연구』, 109: 229-257.
- 김은해·박배균 (2016), 「일본 원자력복합체와 토건국가」, 『ECO』, 20(2): 97-130.
- 남경희 (2010), 「일본환경교육의 전개와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5(2): 23-40.
- 민덕기 (2019), 「일본 도호쿠 지방에선 왜 아베정권의 ‘메이지유신 150년’을 보신전쟁 150주년으로 기념하고 있을까」, 『한일관계사연구』, 66: 315-353.
- 정충실 (2021), 「엑스포 70, 한국이 빌려온 미래」, 『문화와 융합』, 43(7): 661-678.
- 조진우 (2020),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일본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68: 145-173.
- 다카기 진자부로 (2000), 김원식 역 (2001),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서울: 녹색평론사.
- 다카하시 데츠야 (2012), 한승동 역 (2013),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 서울: 돌베개.
- 마루카와 데쓰시 (2005), 장세진 역 (2010), 『냉전문화론』, 서울: 너머북스.
- 西川幸次郎 (1937), 『映画教育叢書一映画学習方法論』, 東京: 生美堂.
- 關野嘉雄·下野宗逸 (1938), 『講堂映画方法論』, 東京: 成美堂.
- 文部省 (1933), 『都府県及び都市における教育映画利用状況』, 東京: 文部省.
- 文部省 (1931), 「文部省における民衆娯楽及び教育映画に関する施設概要」, 『文部省教育時報』, 11: 11.
- 水野新幸 (1925), 『大阪毎日新聞活動写真史』, 大阪: 大阪毎日新聞社.
- 新井智一 (2005), 「東京都福生市における在日美軍横田基地をめぐる場所の政治」, 『地理雑誌』, 114(5): 767-790.
- 吉見俊哉 (2014), 「被爆の悪夢からの転換-原子力広報言説の戦後史」 『戦後復興から高度成長へ: 民主教育・東京オリンピック・原子力発電』, 吉見俊哉編, pp. 253-280,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土屋由香 (2012), 「原子力平和利用USIS映画-核ある世界へのコンセンサス形成」, 『占領する眼・CIE/USIS映画とVOAラジオ』, 土屋由香・吉見俊哉編, pp.

47-76,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原田健一 (2012), 「CIE映画/スライドの日本的受容-「新潟」という事例から」, 『占領する眼・CIE/USIS映画とVOAラジオ』, 土屋由香・吉見俊哉編, pp. 265-290,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瀬尾華子 (2016), 「PR映画に描かれた原子力-1950年代末葉から1960年代の「平和利用」「科学技術」「近代化」」, 『社会情報学』, 4(3): 47-62.

船橋晴俊 (2013), 「福島源展災の制度的・政治的欠陥-多重防護の破綻という視点」, 『東日本大地震と社会学』, 田中重好・船橋晴俊・正村俊之編, pp. 136-161, 東京: ミネルヴァ書店.

「初原の原発 大阪万博照らす 電気が生まれた(4)」, 『日本経済新聞』, 2015.08.28.

「学校でPR映画」, 『朝日新聞』, 2012.02.07.

Baudry, J.L. (1975), "Ideological Effect of the Basic Cinematographic Apparatus." *Film Quarterly*, 28(2): 39-47.

Noi Sawaragi (2005), "On the Battle Field of 'Superflat': Subculture and Art in Postwar Japan", in Takashi Murakami (ed), *Little Boy: The Arts of Japan's Exploding Subculture*, pp.187-20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

Japanese Propaganda Films on Nuclear Power Plants
: The Mythifi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Jeong, Choong-Sil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in Japan, there have been active productions and screenings of propaganda/educational films serving the purpose of public education/mobilization, enforced and intentionally reenacted by the authority. Propaganda films on nuclear power plants were also produced and screened for this exact objective of education and mobilization of the mass. These particular films from the 1960-70s demonstrated the idea that Japan will establish a new national identity through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by rebuilding its identity from a lost country to a progressive nation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from a victim suffering from the destructiveness of nuclear energy to a peaceful user of the same energy. More films from the 1980-90s, by which Japan had already consolidated itself as an economic powerhouse, mainly dealt with the crossroads of natural environment and economy –how nuclear power plants can coexist with nature and the surrounding communitie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lated enterprises monopolized effective mobilization/education methods like films in order to successfully manifest the mythifi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this initiative, they strived to deliver biased, one-sided messages while causing a significant lack of flow in sharing various perspectives about nuclear power plants.

[Key Words] Japanese propaganda films on nuclear power plants, national identity, coexistence with nature, overcoming defeat, mobilization of the public

논문 투고일: 2022. 09. 22

심사 완료일: 2022. 10. 27

게재 확정일: 2022. 10. 27

